

인도네시아의 총체적 위기와 메가와티의 정치리더십*

전제성**

- I. 서론
- II. 메가와티의 정치역정: '비극적' 수카르노의 '희극적' 딸
- III. 상징의 정치: '가정주부' 에서 '정의여왕' 으로
- IV. 무위의 정치: 의회와 군부의 압박 속에서
- V. 메가와티 정치리더십의 한계
- VI. 결론

메가와티는 총체적 위기에 처했던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IMF 관리경제를 마치고 민주화를 완결지었다. 흔히 아버지 수카르노의 후광으로 정치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필자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몰락했던 아버지와 달리 그녀가 위기극복의 정치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독자적인 특성이 발휘되었다고 본다. 여성성의 상징정치가 민중의 지지를 동원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타협과 방임의 정치는 정치적 경쟁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하였다. 그러나 동원에서 타협으로의 전환은 정권의 안정과 거시경제의 회복을 낳았지만 집권의 연장을 가능하게 하지는 못했다. 메가와티는 제3세계 경제위기의 정치적 해법에 관한 상상력을 고무시키며, 아시아에서 위기극복과 여성 정치리더십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권력자의 덕목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시각을 적용해볼 수 있는 사례였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4년도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이며(과제번호 KRF-2004-072-BS3037), 2005년도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회의(4월 9일, 서강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줄고를 읽고 적절한 비판과 조언을 주신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린다.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주제어: 경제위기, 국제통화기금, 민주화, 정치개혁, 부패, 상징정치, 아체분쟁, 여성정치리더십

I. 서론

1990년대 후반에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위기는 수하르토(Soeharto)의 32년 통치를 종식시키는 정치변동과 사회폭력을 수반하고 이로 인한 불안이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면서 ‘동아시아 최악의 위기’라 불릴 정도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위기로부터 경제를 건져내고 민주화의 열망을 정치개혁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종교와 종족 균열에 근거한 사회적 도전에 맞서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던 이가 바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oekarnoputri)이다. 그녀는 2001년 7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신도를 보유한 나라에서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었으며 2억 5천 인구의 세계최대 군도 국가의 수반으로서 2004년 10월까지 3년 3개월간 재임하였다. 재임기간 중에 재정규율이 확보되면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 실행되어 6년에 걸친 민주주의 이행이 완결되었다. 재선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민주화로 막강해진 의회의 견제 속에서 전임자 하비비(B. J. Habibie)나 압두르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와 달리 안정적으로 집권하고 임기를 무사히 종료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메가와티가 발휘한 ‘위기극복의 정치리더십’을 규명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교정치론의 발전을 위한 경험적 사례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필자는 리더십 연구방법에 있어서 지도자가 역사를 만든다는 식으로 개인의 성향과 역할을

중시하는 “특성론”이나 역사적 환경이 지도자를 형성하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상황론”에 치우치지 않고, 지도자, 지지자, 제도적 환경의 상호작용을 감안하는 “상호작용론”을 따르고자 한다(이명남 2007, 32-38). 즉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특성과 역할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긴요하며 큰 틀에서 제도적 여건과 정치적 세력관계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리더십을 한계 짓는다는 접근법을 취한다(박사명 200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가와티의 개인사, 추종자들의 작용, 경쟁정당 및 군부와의 협력관계가 경제위기와 민주화 도상의 인도네시아 상황과 관련지어 고찰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방식의 메가와티 정치리더십 연구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으로는 정치리더십이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선거정치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며(Liddle and Mujani 2007), 다른 한편으로는 메가와티는 ‘거대한 이행’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민주화를 관통하였던 핵심적 정치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식있는 인도네시아 인들은 대체로 메가와티의 정치리더십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집권 이전에는 메가와티가 민중들을 도탄에서 구원해 줄 ‘정의여왕’(ratu adil)으로 추앙받았지만 집권기에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고 심지어 ‘바보’(bodoh)라고 조롱하는 엘리트들이 허다한 마당에 리더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메가와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도네시아의 정치리더십이나 민주화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필자는 엘리트주의적 냉소에 대한 하나의 반론으로서 제시되는 이 논문이 인도네시아 정치의 이해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필자는 본 연구가 학술적으로도 정치경제론과 정치리더십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선 정치경제론의 차원에서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개혁과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고 양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

이 중대한 연구주제로 제기되어 왔다(Hellman 1998; 이영조 1999).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정치경제론의 이러한 대주제에 관한 지구적 차원의 비교연구를 가능케 할 사례를 제공하게 되었고, 본 논문이 이러한 교차지역적 비교연구를 자극하는 사례연구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치리더십의 차원에서는 본 논문이 여성정치리더십 연구의 발전을 위한 적실한 사례연구라고 본다. 아시아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문화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여성정치인의 역할이 혁혁했다(Richter 1990-91; Thompson 2004; 김민정 2006). 이러한 현실은 아시아의 여성주의자들이 가부장주의나 종교적 제약을 비판하는데 안주하지 말고 그런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발휘되는 여성정치리더십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전개할 것을 요구한다. 메가와티는 아시아여성정치리더십의 중요한 사례이므로 본 연구가 실제적인 여성정치 연구에 보탬이 되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얇팍한’(thin) 자료의 과다와 ‘농밀한’(thick) 자료의 과소는 정부수반에 관한 연구의 고충이라고 이야기된다. 언론보도나 정치평론의 형태로 정부수반에 관한 무수한 자료가 존재하지만, 정책결정과 일상적 활동에 관한 깊이 있는 관찰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부수반에 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수반에 관한 연구자들은 경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Hart 1998; Bowles 1999). 이 연구도 이러한 일반적 결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이 상호작용론에 입각한 정치리더십연구이므로 추종자들의 동태나 정치사회적 환경도 중시하였고 그런 종류의 자료라면 필자가 1999년 6월 총선 참관과 2004년 4월 총선 및 7월 대선 참관을 포함하여, 1999년 이래 200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꾸준히 수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메가와티의 정치역정: ‘비극적’ 수카르노의 ‘희극적’ 딸

메가와티는 ‘수카르노의 딸’(soekarnoputri)이다. 이것은 그녀의 정치역정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사실이다. 수카르노(Soekarno)는 네덜란드식민주의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로서 탁월한 웅변술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45년 독립선언 이후 초대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세계적인 비동맹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였으나 최대 백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1965년 쿠데타를 계기로 수하르토에게 권력을 찬탈당하고 연금 상태에서 사망한 ‘비극적’ 영웅이다. 수카르노는 여러 가지 실책에도 불구하고 남성적 과감함(machismo)과 결합된 카리스마와 전략적 지혜를 통하여 인도네시아를 국제무대의 대국으로 끌어올렸던 전설적이고 낭만적인 지도자로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카르노의 후광 덕분에 메가와티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는 인물이 된 것이다.

수카르노의 두 번째 부인 파트마와티(Fatmawati)는 1947년 1월 23일에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메가와티를 출산했다. 장녀이자 둘째였다. 당시는 승전국으로 식민지에 재진입하는 네덜란드에 맞서 ‘민족혁명’을 전개하던 시기였다. ‘메가와티’는 출산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구름(mega)의 여자(wati)’ 혹은 ‘구름 속에서 태어난 여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카르노의 회고에 따르면 두터운 검은 구름이 뿌려대는 억수같은 비가 누추한 방으로 들이치던 밤에 메가와티가 태어났다. 자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쉽지 않은 인생역정을 산다고 믿어 왔는데 그녀의 삶이 그러했다(Sumarno 2002, 1). 물론 그녀는 안락함을 만끽한 ‘궁정의 아이’였다. 두 살 때부터 대통령궁에서 살았고 소녀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세계를 여행하고 각국의 국왕과

수반들의 포용을 받았으며 국가행사에 빠진 적이 없었고 종종 국빈들 앞에서 고전무용을 추도록 권유받곤 했다. 그렇지만 소녀시절에 어머니의 가출을 겪은 데 이어 열아홉의 나이에 아버지의 무력화를 목도해야만 했다(Unidjaja 2004a).

메가와티는 ‘가정주부’(ibu rumah tangga)로 종종 언급된다. 아버지가 새 부인을 맞이하자 어머니가 오빠만을 데리고 대통령궁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메가와티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고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공군장교 수린드로(Surindro Supjarso)와 결혼했고 아들 둘을 두었다. 수린드로가 파푸아(Papua)의 비악(Biak)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로 실종되자 이집트 외교관 하산(Hassan Gamal Ahmad Hasan)과 재혼했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몇 달 만에 헤어졌다. 1973년에 청년시절부터 수카르노주의자였던 사업가 타우픽 키마스(Taufik Kiemas)와 세 번째로 결혼하여 딸을 하나 낳았다. 마흔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메가와티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가정주부로서 조용하게 지냈다.

그녀가 비범한 가문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주부’로 인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주요 정치인들과 달리 대학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1965년에 반둥(Bandung)의 빠자자란대학교(Universitas Padjajaran) 농대에 입학하였지만 같은 해에 수하르토에게 실권을 빼앗겨 무력해진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1970년에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 심리학부에 입학하여 학업을 재개하였지만 바로 그 해에 남편이 실종되고 다음해에는 아버지까지 사망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대학을 중퇴해야 했다(100Tokoh, 127). 이런 학력은 민주화 시기의 정치적 경쟁자들과 뚜렷이 대조되는 것이었다. 하비비는 항공학 박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는 농경제학 박사,

아민 라이스(Amien Rais)는 시카고대의 정치학 박사였고 와히드는 이집트의 알아자르(Al Azhar)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가방 끈이 짧은 가정주부’라는 그녀의 이미지는 차후에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논쟁적 소재가 된다.

그러나 메가와티는 가정주부로 머물지 않고 수하르토 체제의 종식이 예견되던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1987년 선거 때 인도네시아민주당(PDI: Partai Demokrasi Indonesia)의 중부자카르타 지구당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하였다. 메가와티를 수카르노 향수를 자극하는 ‘정치상품’으로 이용하려는 수르야디(Soerjadi) 당총재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메가와티는 1992년 총선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더니 1993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아래로부터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예상을 뒤엎고 당수로 선출되면서 수르야디의 장식품에 머물지 않고 야당정치의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이에 위협을 느낀 수하르토가 그녀의 민주당수 자격을 빼앗는 공작에 성공하였지만 메가와티의 신화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을 뿐이다. 1996년에 정부가 개최비용을 대고 참모총장과 내무부장관이 참석한 메단(Medan) 임시전당대회에서 전 당수 수르야디를 민주당의 새 당수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메가와티의 당수직이 박탈되었다. 같은 시점에 자카르타에서는 5천여 명의 메가와티 지지자들이 민주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항의행동을 전개하였고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날인 7월 27일 군경이 민주당사로 들이닥쳐 지지자들을 몰아내자 사태가 폭동으로 번져서 5명이 죽고 149명이 부상당하는 이른바 ‘7월 27일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Luwarso 1997, 133-40). 메가와티는 소송을 시도하는 한편 입박한 총선에서 무효표(golput: golongan putih)를 던지자고 호소하는 등 사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을 전개하였다.

수하르토의 장기집권이 1997년의 경제위기와 1998년 5월의 연쇄적인 폭동으로 종식되자 메가와티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수하르토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은 하비비가 정당설립을 자유화하자 메가와티는 수르야디의 민주당과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Perjuangan)을 창건하여 당수의 자리에 오른다. ‘투쟁’이라는 말은 의외로 그녀와 잘 어울리는 말이었는데 수카르노의 이미지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주요 정치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하르토 정권에 협력하거나 행정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1999년 6월에 44년 만에 시행된 자유총선에서 민주투쟁당은 33.7%를 득표하고 전체선출직의원 462석 중에 154석을 차지함으로써 최대정당이 되었다(KPU 2000, 192). 메가와티의 조직적 기반이 오로지 민주투쟁당 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녀의 성공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었다. 경쟁자였던 와히드는 세계최대의 이슬람조직 나흐다툴 울라마(NU: Nahdatul Ulama)를, 아민 라이스는 두 번째로 큰 이슬람조직 무하마디아(Muhammadiyah)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메가와티는 급조되어 조직적으로 취약했던 민주투쟁당만을 기반으로 하였을 뿐이다. ‘메가와티열풍’(Megamania)이 민주투쟁당을 제1당의 자리에 올려놓자 같은 해 10월 20일에 개최되는 대통령선거에서도 메가와티의 승리가 예견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식 게임’이라고 불리는 국민협의회(MPR)의 대통령간접선거에서 와히드가 당선되었다. 그 다음날 메가와티는 좌절한 지지자들의 폭동위협, 와히드의 제안, 남편 타우픽의 선거운동에 힘입어 부통령에 선출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칠년 연상의 와히드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메가와티에게는 무척 당혹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에 임하면서 그녀가 승리를 너무 자신하여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 패인으로 지적되었다.

와히드는 NU 창설자의 손자로 이슬람지도자(kyai)이면서도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수하르토 치하에서 과감하게 민주주의포럼을 이끌어 대안적 지도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인데, 1997년 선거 때는 수하르토를 후원하는 유세에 참가하여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 와히드는 민주화의 4대 지도자에 포함되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시각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고 타인이 부축해야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그의 국민각성당(PKB: Partai Kebangkitan Bangsa)이 51개 의석만 확보한 제4위의 정당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와히드 대통령은 ‘무지개내각’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당적인 내각을 편성하여 지지기반을 넓히고 특유의 유머와 자유주의적 기치로 신선하게 출발했다. 그렇지만 ‘매일 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좌충우돌의 정치불안을 노정하다 결국 2년도 넘기지 못하고 부패혐의로 2001년 7월 23일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국민협의회(MPR) 의원들의 투표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메가와티가 와히드의 3년 남짓한 잔여임기를 채우는 대통령이 되었고, 부통령으로 선출된 함자 하즈(Hamza Haz)와 짝을 이루었는데 그는 이슬람을 표방하는 원내 제3당 통일개발당(PPP)의 당수였다.

메가와티는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빠진 국가를 넘겨받았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종족갈등과 종교갈등이 증첩된 사회폭력이 빈발하고 연쇄적인 폭탄테러에다가 와히드 탄핵 문제로 정치세력과 사회조직들이 양분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그렇지만 메가와티 집권 3년 3개월 사이에 인도네시아가 대체로 안정과 회복의 길로 접어든다. 우선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었다. 모든 산업부문이 성장세로 돌아서고,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던 광업마저도 2004년에는 결국 3.3%의 성장세로 돌아섰다. 인플레이션은 10% 이하를 유지하였다. 환율은 이전시기보다 양호한 선에서 안정되었으며 이자율도

낮아졌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금융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의 수지균형과 규율이 확보되면서 집권 말기에 IMF 관리 경제를 졸업할 수 있었다(Sato 2005; Atje 인터뷰 2007/01). 또한 메가와티 집권기에는 정당간의 갈등이나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개혁입법이 추진되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 분쟁조정법 같은 노동관계법 개정이 노사 대표들의 합의로 이루어졌고(전제성 2005), 군부에 할당되던 의석을 포함하여 임명직 국회의원을 모두 없애고 대통령 직접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도입하는 정치개혁도 성사되었다. 기본권의 신장, 권력의 분립, 지방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심화가 이루어져, 결국 인도네시아는 서구와 한국처럼 “자유로운”(free)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다(Puddington 2007, 128-29).

이러한 성과를 주장하며 메가와티는 2004년에 인도네시아 사 상최초로 실시되는 대통령직접선거에 출마하였다. 아무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1차 선거에서 2위를 확보하여 결선에 진출하였지만 자신이 정치안보조정장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예비역장성 수 실로 밤방 유도요노에게 패배하여 2004년 10월 20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놀라운 사실은 메가와티가 2004년 선거패배이후에도 현 정부를 가장 선명하게 비판하는 야당지도자로 활약하면서 일정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7년 정당선호도 조사에서 그녀가 이끄는 민주투쟁당이 1위를 차지하였고 정치인선호도 조사에서 그녀는 유도요노에 이어 20%대의 지지를 받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막강하다. 메가와티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아버지의 ‘비극적’ 종말을 ‘희극적’으로 전환시켰다. 개인적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집권기간 동안에 경제회복과 정치안정을 가져오는 정치적 성공을 이룩했다. 이러한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왜 그 성공은 재선으로 연장되지 못하였을까? 이하의

글에서는 이런 의문을 메가와티 정치리더십의 특성과 상황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III. 상징의 정치: ‘가정주부’에서 ‘정의여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가와티는 아버지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아버지가 ‘강한 인도네시아’를 만들었다며 추앙받는 민족영웅이 아니었던들 그녀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메가와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수카르노의 ‘딸’이기 때문이다. 수카르노와 여성성의 결합이야말로 경제위기와 민주화의 시대에 민중을 매료시키는 메가와티식 상징정치의 완성본이자 정치리더십 특성이었다.

그녀가 정치에 입문하고 야당의 당수로 선정되기까지의 정치활동은 수카르노 요인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1980년대 말부터 국민들 사이에 두드러진 수카르노에 대한 향수 덕분에 그녀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고 출마하여 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고 1992년 총선유세에서도 엄청난 인파의 환호를 받고 재선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으며 바로 그 다음해에 취약한 연설능력과 두드러지지 않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수로 선출될 수 있었다(Brooks 1995).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강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망이 대두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수카르노 이미지는 메가와티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 되었다. 그렇지만 메가와티는 수카르노와 달랐다. 인도네시아의 정치리더십에 관한 전문가인 앵거스 매킨타이어(Angus McIntyre 2001)의 평가에 따르면 메가와티보다

오히려 와히드가 수카르노와 더 유사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구사하였다. 수카르노가 카리스마를 담은 선동적 웅변술로 일제점령기에 전국을 돌며 민족혁명의 길을 개척하였다면(Legge 2001), 와히드는 각지의 이슬람기숙학교(pesantren)를 방문하여 재치 넘치고 계몽적이고 변증법적인 달변으로 토론을 벌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는 것이다(Barton 2002). 반면에 메가와티는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고 미소만 머금은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정원 단장을 취미로 삼고 그림과 조각을 사랑하는 여성이었다. 열변을 토해야 할 때 그저 준비된 글을 읽어내는 식의 연설을 일관하여 그녀를 통해 개혁적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이들을 실망시켰다. 결정적인 정치적 계기마다 그녀는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로 적게 말했다. “내게 말하기를 강요하지 마라”(jangan paksa Saya asal bicara)는 본인의 말처럼, 메가와티는 언론의 카메라에 수줍음을 타는 ‘가정주부’ 스타일이었다. 연설 능력만 본다면 아버지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적이었던 수하르토와 더 흡사하였다. 와히드는 자신과 부통령이 “환상적인 팀”을 이루었다면서 자신이 “장님”이라면 메가와티는 “병어리”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 장님이라는 말이 시력이 극도로 약화된 신체적 결함을 과장한 것이라면, 병어리라는 말은 메가와티의 연설적 무능을 과장한 것이었다(McIntyre 1999). 메가와티의 전기 중에 하나에서도 그녀의 능력에 관한 논란으로서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비판을 제일 먼저 꼽았다. 이러한 비판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결부되었다(Sumarno 2002, 61-87).

그러므로 메가와티의 정치 리더십은 수카르노 요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1996년에 당수자격 박탈, 1999년 선거, 부통령을 거쳐 대통령이 되기까지 메가와티는 복합적이고 독자적인 상징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수카르노주의의 상징”에 더하여, 당수가 되는 과정에서 작용한 “플뿌리 힘(kekuatan arus bawah)의 상징”, 당수자격 박탈을 계기로 “수하르토 체제의 희생

자로서의 상징”, 자카르타폭동과 1997년 선거과정에서 “공개적 저항의 상징”이 부가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폭압과 빈곤의 고통을 겪은 민중들을 보살펴줄 “정의여왕의 상징”으로 완성된다(Sumarno 2002, 158-64). 여기서 정의여왕이라는 상징은 경제위기와 1999년 선거과정에서 그녀의 여성성이 지지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해석되고 전파된 결과였다. 따라서 메가와티의 정치리더십은 여성 정치리더십 논의와 관련지을 때 더 온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정치지도자는 지지자들의 열망이 만들어내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시각을 취할 때 메가와티의 상징정치가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메가와티에 대한 반대자들이 메가와티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학식도 적은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그녀의 여성성을 약점으로 삼아 공격하고 회의할 때(Sen 2002, 54-56), 민주투쟁당에 집결한 메가와티 지지자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해석을 개발하여 정의여왕의 전설을 부활시켰다. 수하르토 치하에서 그녀의 침묵은 탄압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같은 처지에서 침묵해야 하는 민중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였다(McIntyre 1999). 필자도 “메가와티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유권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수하르토 퇴진 이후에는 그녀가 “적게 말하기 때문에 민중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메가와티가 무식하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똑똑한 자들은 민중들의 돈을 훔치는데 똑똑할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학식이 아니라 “보살핌과 정의”라고 응수하곤 했다. 1999년 대선을 앞두고 이슬람교의 입장에서 여성대통령은 적합하지 않다는 인도네시아무슬림 지식인연합(ICMI: Ikatan Cendekiawan Muslim Indonesia)의 입장 발표는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메가와티의 여성성이 정치적 약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메가와티가 여성이라는 점은 부패하고 폭력적인 남성권력자 수하르토와 대조되는 순수하고 평화적인 이미지의 형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

녀의 모성도 경제위기 시기에 민중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덕목으로 선전되었다. 메가와티의 지지자들은 “메가와티가 가정 주부이기 때문에 부패를 일삼는 걸 두려워할 것”이며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듯이 민중을 돌볼 것”이라면서 그녀의 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메가와티를 옹호하는 주장들은 빈민 연구자 겸 운동가인 레아 젤리넥(Lea Jellinek 인터뷰 2000/04) 여사에 의해 처음으로 정리되었으며, 필자도 1999년 6월의 선거를 관찰할 때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던 담론이었다.

메가와티는 농민, 노동자, 빈민, 여성 등 이른바 힘없는 ‘서민들’(wong cilik: 소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필자가 2000년에 제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필자가 수행한 설문조사는 노동자가 민주투쟁당의 중요한 지지기반이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자카르타의 카드공장 노동자 전체 중에서 86%가 민주투쟁당에 투표했다고 답했는데 그 지역의 지지율 39%보다 훨씬 높았고, 시도아르조(Sidoarjo)의 한 직물 공장 전체 노동자중에서 56%가 민주투쟁당에 투표했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그 지역의 41% 지지율보다 웃돌았다. 메가와티가 여자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여성노동자들도 더러 만날 수 있었다. 메가와티를 지지하는 서민들은 1999년에 성난 황소를 그려 넣은 붉은 깃발을 들고 역동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Surabaya)에서 전개된 유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유세가 민주투쟁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펼쳐졌고 당시 지지자들은 마을단위로 자금을 모으고 온 가족이 유세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결국 메가와티의 정치적 성공은 ‘열광적’이고 ‘감정적’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지지자들의 꿈이 실현된 것이었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99)이 한탄했듯이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위기는 과거 민족혁명기와 같은 걸출한 영웅들을 낳지 못했으며, 진정한 영웅의 부재가 인도네시아 민주화의 결함이자 비극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의 민중들은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다. ‘수카르노의 재림’을 고대하던 민중들은 비록 수카르노식 리더십은 지나지 못했지만 메가와티를 통해 꿈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메가와티의 리더십 특성은 그녀의 실제와 지지자들의 열망이 결합한 결과였고 그런 의미에서 메가와티는 상향식 상징정치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메가와티 역시 상징정치를 조용하지만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메가와티는 “조금만 말하지만 확실하게 말하기” 전략을 취했다(Azra 2003, 53-54). 조금만 확실하게 말하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복잡한 인도네시아의 맥락에서 요청되는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했다. 하비비 대통령은 혼자서 너무 빠르게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와히드 대통령은 방만한 농담과 충격적 발언으로 혼란을 초래하므로 파국을 면하려면 “누군가 그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Wanandi 인터뷰 2000/07). 당시 정치부기자들은 금요일마다 늦게까지 퇴근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와히드가 금요일 이슬람예배시간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Karaniya 인터뷰 2007/07/11). 한편 유도요노 대통령은 장관 시절에 기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친절함 브리핑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호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비판을 참지 못하고 매번 반박 연설을 내보내서, 대통령보다는 교수가 더 어울린다는 비판도 받았다(Tommy 인터뷰 2006/02/21; Thee 인터뷰 2005/01). 이런 맥락에서 메가와티의 조용함은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차별하고 인내력 있고 일관성 있다는 평가를 끌어내는 장점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메가와티의 조용함은 민주투쟁당의 당수로서도 필요한 덕목이었다고 평가받았다. 민주투쟁당은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중들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정당으로서 아주 격정적인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당원들에게 승패와 관계없이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조용한 요청이 효과적

이었다는 것이다(Unidjaja 2004a). 격정적 민주투쟁당원들과 차별한 당총재의 리더십은 적절한 ‘궁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메가와티는 또한 모성의 상징적 위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하였다. 그녀는 연설할 때 “이 땅의 내 아이들에게”라는 말로 자신을 어머니로 상징하는 전략을 취했다. 메가와티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했을 때의 연설도 적절한 예가 된다.

전국의 내 아이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성심껏 업무에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 당신의 어머니가 서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Kompas* 1999/10/12).

메가와티는 부통령 재임기에 새로운 각도로 여성성의 상징정치를 전개한다. 이 당시의 연설은 그 이전의 감정적이고 강한 어조를 찾아볼 수 없고 얌전하고 조용한 어조의 연설로 일관했다고 한다. 와히드의 그림자를 따라 2인자로서 힘없이 위치를 지키는 그녀의 태도는 지지자들에게 이룩되지 않은 꿈의 서글픔을 유발하는 효과를 주었다는 것이다(Machali 2001). 다소곳한 ‘여동생’의 상징정치는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공포’를 줄이는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폭동과 분쟁이 빈발하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중동원에 대한 공포”(grassroots-mobilization fear)가 정치엘리트들과 사업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데(Lane 1999; Bellin 2000), 당시 메가와티는 대중동원을 자원으로 삼는 정치가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여동생의 상징정치는 메가와티에 대한 반대세력의 공포감을 줄이는데 유효했을 것이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시기에 여성정치인의 역할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정치인이 구체제세력, 기득권자, 정치적 경쟁자들에게 비교적 덜 공격적인 상대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

는 마크 톰슨(Mark Thompson 2004)의 주장은 메가와티가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되는 국면에서 설명력을 지니는 주장이다.

IV. 무위의 정치: 의회와 군부의 압박 속에서

메가와티는 집권이전에는 풀뿌리 동원을 무기로 삼는 민주주의자로 인식되었지만 집권이후에는 경쟁정당들과 군부에 대하여 타협적인 노선을 견지하였다. 메가와티의 타협적인 리더십은 개인적 특성의 산물인 동시에 정치적 상황의 결과였다. 민주주의 이행기 인도네시아 정치체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이중권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행정부의 ‘고무도장’에 불과했던 헌법상 국가최고의결기구인 국민협의회(MPR)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탄핵하는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어떤 정당도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분극적 다당제가 형성되어 여러 정당간 연대가 필요했다. 그런데 와히드는 이런 사실을 망각한 듯 했다. 짧은 집권기 동안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사건이 60여건에 달할 정도였다(Haris 2007, 195-206). 와히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의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와히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반면에 메가와티는 부통령 재임기를 거치면서 와히드보다 더 예측 가능하고 덜 위협적인 인물로 의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민주화 시기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을 살펴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체제 세력’의 강력한 잔존이다. 수하르토 시기 집권당이었던 골카르(Golkar)는 근 30년간 다듬어온 조직기반을 가동하여 1999년 민주총선에서 제2위의 득표로 당을 존속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메가와티 집권말기에는 여론조사에서 27%의 지지를 받아 13% 지지의 민주투쟁당을 압도하였으며(McBeth 2004), 2004년 총선에서 제1당의 자

리를 차지할 정도로 당력을 급속도로 복원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국가속의 국가’로 불리는 군부는 수하르토 집권기의 인권침해와 동티모르 독립과정의 폭력행사로 인해 정치일선에서 퇴각을 강요당했지만 여전히 전국적 조직망과 물리력을 기반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민주주의 이행기에 발생한 폭동과 분쟁, 빈발하는 폭탄테러, 그리고 9.11 이후 국제적인 반테러 전쟁과 같은 국내외 정세는 군부가 정치력을 유지하는 기회구조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와히드는 군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정치안보조정장관 위란토(Wiranto)를 동티모르 폭력사태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수하르토와 그의 아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등 구체제 세력에 대한 부분적 공격을 가했었다. 국민협의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날에 와히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시키고자 했지만 당시 군을 통솔했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가 명령을 거역하고 의회를 수호함으로써 탄핵이 성사되고 메가와티의 집권가도가 열리게 되었다(전제성 2002). 따라서 메가와티의 집권은 의회의 탄핵과 군부의 불복종 덕분에 가능했으며 그런 만큼 집권 시기 메가와티의 운신은 의회와 군의 힘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메가와티는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제한된 운신의 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므로 메가와티의 정치리더십은 적극적 지지세력과의 합작품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쟁세력들과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다양한 정당들의 의원들은 와히드보다 덜 위협적이고 더 예측 가능한 메가와티로 대통령을 갈아 치웠고 메가와티는 협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의 도입으로 해석될 만큼의 대연정을 펼쳐서(Sebastian 2004) 모든 주요 정당에 장관직을 배분하고 장관들 대부분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의 ‘대타협의 정치’, 그녀의 내각 별칭처럼 “상호부조”(gotong royong)의 정치로 화답하였다. 와히드의 명령을 거역했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에게 정치안보조정장관을 맡겼으며 유도요노는

마치 수상과 같은 역할을 했다. 골카르당 당수 악바르 탄중(Akbar Tanjung)은 국회(DPR) 의장으로서, 국민수권당(PAN) 당수이자 통일개발당(PPP)을 비롯한 이슬람정당의 연대체인 중앙축(Poros Tengah)을 좌우하면서 와히드 탄핵을 주도했던 아민 라이스는 국민협의회(MPR) 의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메가와티 행정부와 편안하게 동행한다. 이로써 각 정치세력은 모처럼 안정과 여유 속에서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와히드가 날마다 새로운 적을 만들어갔다면 메가와티는 모든 적을 꺾어냈다. 메가와티는 1996년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전개한 항의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수티요소(Sutiyoso) 장군이 자카르타 주지사가 되도록 밀어주었고 심지어 1996년사태의 추모식에 불참하고 소송에도 반대할 정도로 정적에 대하여 공격이나 보복을 가하지 않았다. 메가와티는 대통령 재임기에 결코 “정적을 거꾸러뜨리지 않았고”, 덕분에 2004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Tommy Legowo 2006/02/21).

대통령 집권기에 메가와티가 정권안보를 위해 취한 전략은 ‘무위’(無爲: tidak bikin apa-apa)의 정치였다. 메가와티는 아버지 수카르노와 달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존중하였고 행정부 일에도 좀처럼 개입하지 않았다. 나쁘게 보면 나태와 무책임이지만 좋게 보면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도네시아정치전문가 타카시 시라이시(Takashi Shiraishi)는 메가와티의 이런 행태를 “렘파르주의”(lempar-isme)라고 불렀는데 인도네시아어 ‘렘파르’는 ‘집어던지다’는 뜻으로 렘파르주의란 장관들에게 대부분의 결정을 떠넘겨 버리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었다(Masaaki 인터뷰 2007/07/06). 그러나 저명한 시사주간지『템포』(Tempo)의 정치부 기자 타우픽(Taufik) 인터뷰 2007/07/11)은 메가와티의 장점이 “조용함”이고 그 효과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단언했다. 덕분에 재무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 같은 몇몇 장관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펼칠 수 있었고 의회의 입법과

정도 순조로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입과 독단이 심했던 수하르토나 와히드의 리더십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메가와티의 무위가 미덕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

군부에 대한 메가와티의 일정한 순응도 집권안정의 비결이었다. 메가와티의 정치적 아성인 발리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대규모 폭탄테러는 메가와티와 군부의 근접조우를 더욱 촉진하였다. 또한 국가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메가와티는 군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다. 메가와티는 연방제를 반대하고 단방제(unitary state)를 옹호하는 것을 강력한 신조 중에 하나로 삼아서, 동티모르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하면서 동티모르의 합병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부통령 시절에 아체(Aceh)와 파푸아(Papua)의 분리주의에 대한 와히드의 관용적 대응에 불만을 표했으며(Liddle 2001), 최근에도 단방제를 민주투쟁당의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Jakarta Post 2007/07/02). 군부와 정보기관들은 “NKRI”(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공화국의 국가통합)라는 신조어를 내세우면서 메가와티에게 화답하였다. 결국 2003년 5월 19일에 메가와티는 아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분리주의를 꺾어버려야 한다는 군부의 요구에 순응하였다. 『템포』 정치부 기자 카라니아(Karaniya 2007/07/11)의 표현을 빌자면, 군부는 민주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아체를 제한된 공간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놀이터’처럼 넘겨받게 되었다. 이렇게 메가와티는 경쟁정당들에게는 내각을 배분하고 3권분립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군부에 대해서는 아체를 선사함으로써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정치적 해법을 찾았다.

V. 메가와티 정치리더십의 한계

1. 정책적 문제

메가와티는 집권 3년 3개월간 경제회복과 정치안정을 달성하였지만 재선에 실패하였다. 그렇게 된 이유를 메가와티의 정책과 리더십특성에 관한 비판들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자. 메가와티는 와히드에 비하면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경제참모들도 호평을 받아서 경제회복을 달성하리라는 기대감을 낳았다(Liddle 2004). 그리고 앞서 소개했듯이 거시경제지표를 가시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임기 동안 국민들은 계속 생활물가인상과 일자리 부족을 불만으로 삼았다. 2004년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8월과 9월의 대국민설문조사에서 ‘부패근절’과 함께 ‘물가안정’과 ‘실업해소’가 3대정책 이슈로 나타난 것을 보면 국민들의 불만을 짐작할 수 있다(Ananta et al 2005, 116).

메가와티는 IMF의 요구에 따라 연료소비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삭감해야 했는데, 1997-98년처럼 엄청난 물가인상은 없었지만 온건한 전국노동조합들까지도 메가와티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할 정도로 물가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메가와티 재임기에 고용이 증대했지만 실업률도 높아졌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제조업 성장과 외국인투자가 필요했다. 그런데 제조업 성장률은 메가와티 집권이 종료되는 2004년에도 위기 전인 1996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해외투자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Thee 2006, 345, 356).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일본인 투자 대상국 4위였지만 2004년에는 인도와 베트남에 자리를 내주면서 6위로 하락하였다(Lindblad and Thee

2007, 19). 따라서 4%대의 경제성장이 제조업 덕분이 아니라 소비와 부동산투자 등 비생산적 부문의 활성화에 따른 “제조업투자 없는 성장”일뿐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Thee 2005/01). 정치가들은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려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투자환경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2005년에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사업 환경에 관한 세계은행의 기업가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 불안정, 정부정책 불확실성, 부패 등 세 가지 요소를 중국에 비해 월등하게 심한 장애로 지적하였고, 다른 요소들도 대부분 중국보다 불리하며 단지 세금관련사항들과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있어서만 중국보다 나은 것으로 답했다(Sen and Steer 2005, 293).

‘메가노믹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서민복지와 밀접한 보건과 교육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의 부족이었다. 메가와티 집권말기에 전체재정의 보건과 교육 분야 지출비율이 경제위기를 함께 겪었던 동아시아 국가들 즉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심지어 필리핀보다도 낮았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정부지출 중 교육비지출은 9%로, 태국 27.5%, 말레이시아 20.3%, 필리핀 17.8%, 한국 15.5%보다 낮았다. 같은 해 전체 보건지출 중에서 공중보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9%로, 태국 61.6%, 말레이시아 58.2%, 한국 49.4%, 필리핀 43.7%보다 낮았다(Thee 2006, 351). 보건과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빈곤은 당장의 서민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에 악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메가와티의 경제정책이 지닌 한계는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처방(dokter IMF)”을 따르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양해되곤 하였다(Sadli 2005, 237). IMF가 재정 규율 확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메가와티 정부는 확대재정을 통해 공공투자와 복지를 확대하고 일감을 늘이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확대재정을 통해 하부구조를 확충하고 빈곤감소프로그램과 경기부양책을 펼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

은행이 2007년이 되서야 뒤늦게 권고하였을 뿐이다(*Jakarta Post* 2007/02/13). 그러나 메가와티는 이러한 상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율성을 발휘했어야 한다. 메가와티는 2004년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빈곤층에게 무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법을 통과시켰고 빈곤층을 위한 백만 주택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다(Unidjaja 2004b).

두 번째로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자. 그녀는 구체제 세력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세력균형을 형성하고자 하지 않았고, 너무나 타협적이어서 오히려 구체제의 재편과 진군을 허용하였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메가와티의 집권기를 거치면서 군부는 아체 계엄령과 국방비 증액으로 실익을 챙겼고 수하르토 총성파의 결집장인 골카르당은 2004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Mochtar 인터뷰 2006/02/15). 특히 아체 지역에 1975년 동티모르 침공 때에 근사하는 5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연성쿠데타”(soft coup)라고 불릴 만큼 군부의 이해관계에 포획된 결정이었다고 비판받았다(Liem Soei Liong 2003). 덕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권별로 부여된 자유의 정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메가와티 정부는 유도요노 정부와 와히드 정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Kompas* 2006/02/06). 아체 계엄령 선포 이후에 메가와티는 그녀를 지지했던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집중적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인권단체 임파르살은 2003년에 30건이었던 국가의 폭력 및 인권침해 사례가 2004년에는 150건으로 증가하였다고 정부를 비판하였다(Imparsial 2005). 메가와티는 여성운동단체로부터도 여성과 아동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전쟁을 아체에서 재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권이 요구한 가정폭력법 제정을 경제관련 법안들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3년간이나 미루다가 집권말기에야 법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반여성적인 여

성대통령'으로 비판을 받았다(Wijaksaana 인터뷰 2004/07).

저명한 인권운동가 무니르(Munir Said Thalib) 독살사건은 메가와티 정부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이었다. 군부와 정보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아체와 파푸아에서 자행되는 국가폭력을 줄기차게 비판했던 임파르살 소장 무니르는 2004년에 네덜란드 유학을 위해 탑승했던 국영항공기 가루다(Garuda) 안에서 정보기관원에 의해 독살 당하였다(퐁키 2005). 탑승 전에 무니르는 군 출신보다는 민간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다면서 “메가와티에게 투표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동료들에게 핸드폰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지했던 무니르의 독살사건에 대하여 메가와티는 적극적인 경찰수사를 독려하지 않았다. 메가와티의 남편 타우픽이 무니르 장례식에 참가하려는 조문객들을 위해 비행기를 전세내준 것이 유일하게 적극적인 대응이었다(Poengky 인터뷰 2005/01). 이렇게 메가와티의 집권말기는 아체 계엄령선포와 군부의 영향력 복원, 정보기관의 인권활동가 독살사건처럼 지지자들을 실망시킬만한 사건들로 떠들썩하였다.

2. 리더십 특성의 문제

메가와티의 리더십 특성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은 일찍이 1999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지만(McBeth 1999) 널리 공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시기에 ‘정의여왕’의 실상이 역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메가와티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실망은 무지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메가와티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시해보라는 필자의 질문에 저명한 인도네시아정치전문가 해롤드 크라우치(Harold Crouch) 교수는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람들이 건의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엉뚱하게 화답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것이다(인터뷰 2007/07/06).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테키안위(Thee Kian Wie) 박사도 메가와티가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평가했다(인터뷰 2005/01). 1996년에 메가와티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던 인권운동가 풍키 인다르티(Poengky Indarti) 역시 메가와티의 최대문제로서 “그녀가 똑똑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인터뷰 2007/06/30). 메가와티는 지식이 아니라 정의가 필요하다는 담론으로 지지받곤 했지만 무지의 정도가 너무 심각했다는 것이다. 민주화 시기에 국민협의회(MPR) 의장으로서 5년간 재임하면서 권력을 분점했던 아민 라이스는 메가와티의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면서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메가와티가 길을 가는 중에 외국기자로부터 연방제에 반대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메가와티는 귀찮기 때문이라며, 자카르타에서 수마트라를 가는데 여권 들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확고하게 반대해온 연방제가 어떤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 참모들이 메가와티에게 미리 준비되지 않은 언론인터뷰를 절대 하지 말 것을 권했다(Amien Rais 인터뷰 2006/03/24).

두 번째로 집중된 비판은 나태와 무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공적인 행사보다 사적인 필요를 우선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부통령 재임기에 말루쿠(Maluku)에서 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종교분쟁이 발생한 비상한 시국에 홍콩에서 가족을 동반한 휴가를 즐겼다는 이야기,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2년에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노동

자들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추방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추방당한 국경지대를 방문하여 위로하기보다는 15일간의 외국순방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2003년에 민생에 타격을 주는 연료가인상조치가 발표될 때 발리의 최고급호텔에서 남편 생일파티를 개최하고 1미터짜리 케익을 자른 이야기 등이 해당된다(Unidjaja 2004a). 당수로서 민주투쟁당의 일도 챙겨야 했지만 대부분의 당무를 아무런 직위도 없는 남편에게 떠넘겨버렸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McBeth 2004). 그래서 인도네시아정치전문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메가와티가 “잠에서 깨어난 적이 없고, 먹고, 먹고, 또 먹는” 존재라고 혹평하기도 했다(인터뷰 2005/01). 한마디로 ‘무위도식’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메가와티 재임기에 무언가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였다. 이를테면 각종 개혁입법은 입법부인 의회의 업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직선제의 도입은 국회의 작품이었고 메가와티는 오히려 직선제 시기상조론을 표방했었다(Crouch 2007/06). 노동개혁은 메가와티가 아니라 하비비 행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정에 따라 시작된 것이며 입법은 국회 소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노력하여 맺은 결실이었다(전제성 2004). 경제개혁은 국제통화기금과 월드뱅크가 강제하거나 권유한 결과였다. 재정의 건전성은 ‘미스터노’(Mr. No)라는 별명을 지닌 재무부장관 부디오노(Boediono)의 확고한 통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고 메가와티는 다른 장관들이 재무장관을 공격할 때 그저 방관만 하였다는 것이다(Thee 2005/01). 외교적으로 무리가 없었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 역할을 찾아나가게 되었던 것도 유능한 외무부장관 하산 위라유다(Hasan Wirayuda)의 노고 덕분이라고 이야기되었다. 발리테러범들의 체포도 정치안보조정장관 유도요노의 업적으로 치부되었다. 결국 재임기의 성과는 모두 다른 이들의 업적으로 넘겨졌다.

불행하게도 메가와티의 정치적 기반인 민주투쟁당 역시 좋은 평가

를 받지 못했다. 1999년 총선 때 간부들을 급히 충원한 탓으로 조직이 허술하고 행태가 거칠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민주투쟁당은 집권당 시절을 ‘성숙’의 기회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 2004년 총선 때도 여전히 당직자들은 수준이 낮고 매수되기 쉬우며 권력을 남용하고 민병대 같은 청년조직을 거느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떤 의원은 메가와티가 출석하지 않은 민주투쟁당 당무회의를 아무런 결정도 못하는 ‘유치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수집또(Soetjipto) 당 사무총장은 총선전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녀의 사진만 보여주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큰 이름에 사로잡히니까”라고 무책임하게 답했다(McBeth 2004). 당내부패도 여전하였다. 이를테면 수라바야에서 민주투쟁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역운동가는 자신이 돈을 주고 공천을 받았으며 다른 후보보다 적게 지불하여 당선안정권의 변호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필자에게 토로하였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2004년 총선당시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Bang Ali 인터뷰 2004/04).

무위의 정치라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었지만 무언가 꼭 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적인 3대 정책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부패 문제였다. 경제적으로는 IMF에 발목 잡히고 정치적으로는 군부에 의해 제한되었지만 행정부의 부패사범척결운동 같은 것은 자율적으로 시도해 볼만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메가와티는 부패근절과 관련하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적 파트너들의 부패에 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메가와티가 집권할 때까지 충실하고 확고한 지지자였던 남편은 메가와티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이런개입과 영향력 행사로 정권과 정당에 해를 끼쳤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메가와티가 “결혼의 희생자”라는 평가도 나돌았다(Unidjaja 2004a). 한편 메가와티는 부패사건으로 제소된 악바르 탄중(Akbar Tanjung)을 정치파트너로 삼고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골카르당의 당수이자 국회 의장인 탄중의 부패사건은 2003년 초반부터 선거가 임박한 2004년

초반까지 1년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국회의장의 부패에 관한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한 의원투표에서 메가와티는 민주투쟁당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사법부는 최종심에서 탄증을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선고가 있던 날 탄증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대학생들에게 메가와티의 경찰은 가혹한 구타를 가했다. 메가와티가 3권분립의 확고한 입장을 취하였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탄증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메가와티가 탄증을 부통령후보로 삼아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라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Danu 인터뷰 2004/07).

물론 메가와티의 미덕은 ‘여성은 부패를 두려워한다’는 민중들의 지지담론처럼 그 자신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임대통령 수하르토, 하비버, 와히드처럼 직접 결부된 부패혐의가 없었다. 남편 타우픽은 메가와티를 움직여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의회에 존재하는 자신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곤 했다고 알려졌다(Karaniya 2007/07/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와티는 주변인들의 부패로 인해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99년과 달리 메가와티의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카르타의 어느 택시운전사는 2004년 대선을 앞두고 메가와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메가는 여자다. 여자는 남편한테 진다. 여자는 주변의 부패한 남자들에게 맞설 정도로 강하지 않다”. 메가와티는 지지자들의 꿈과 희망이 만들어낸 상징이기 때문에 전설적인 존재로서 상상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세계로 내려와 대통령이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기 작가의 예견은 적중하였다(Sumarno 2002, 161-62). 메가와티는 ‘수카르노의 딸’에서 ‘정의여왕’으로 변신하는 상징정치에 성공하였지만 집권기를 통하여 상징의 거품이 빠지면서 다시 ‘궁정의 아

이'이자 '가정주부'일 뿐이라는 실망으로 귀착되었다. 구체제세력과 타협하고 장관들에게 행정을 맡겨두고 '무위도식'하여 '정의'라는 수식어는 탈락된 '여왕'으로서 비난받게 되었다. 메가와티는 2004년 4월 총선에서 자신의 민주투쟁당이 골카르당에 밀려 2위로 처지자 대선 패배까지 예감하며 측근에게 다음과 같이 뒤늦은 회한을 토해냈다고 한다. "내가 전에 했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Unidjaja 2004b).

그러나 국민들은 메가와티가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불행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부패근절을 달성할 '강한 리더십'을 희구하는 유권자들은 수시로 밤방 유도요노에게 60% 이상의 표를 주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도요노 대통령의 이름약자 SBY가 뜻하는 게 "나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Saya Belum Yakin)는 뜻이라는 농담이 유행하였다. 집권기 동안 '무위'로 비판을 받았던 메가와티가 최근에 유도요노 대통령의 '무위'를 비판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말랑의 무하마디아 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메가와티는 진흙분출(mudflow)의 피해를 본 시도아르조 지역의 난민들을 접하고 눈물을 흘린 유도요노 대통령에 대하여 "드라마 찍을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공격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Jakarta Post 2007/07/02). 진흙분출은 유도요노 행정부의 복지조정장관이자 골카르당의 간부인 아부리잘 바크리(Aburizal Bakrie)가 소유한 라핀도사(Lapindo Brantas Inc)의 채굴작업 중에 발생한 재난이다. 따라서 국민복지와 관계가 먼 재벌 바크리의 해임이 일찍이 제기되었으나 유도요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이 바라는 의미에서의 '강한' 지도자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고 어찌면 출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VI. 결론

메가와티의 정치역정은 인도네시아 민주화와 함께하였다. 메가와티는 ‘수카르노의 딸’로서 아버지의 후광과 여성적 상징들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희망이 되었다. 자신의 당을 제1당으로 키우고 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민중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하였고 대통령 당선과 집권시기에는 경쟁적 정치세력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하였다. 전자가 민중의 열광적 지지를 동원하는 ‘상징 정치’의 승리였다면 후자는 엘리트 통합을 도출하는 ‘무위의 정치’ 덕분이었다. 조용함과 정치적 방임으로 다원적 원심성 속에서도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세로 돌려서 인도네시아를 총체적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렇지만 구체제 세력의 복원과 인권침해와 부패에 대해서도 방임함으로써 그저 자리만 지킨다는 냉소를 받더니 재선에 실패하고야 말았다. 메가와티의 신비화와 탈신비화는 각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메가와티의 신비화가 서민들의 이익과 참여를 정치의 본령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메가와티의 탈신비화는 그녀의 말처럼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국민적 요구의 산물이다.

메가와티의 조용하고 추상적인 리더십은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정치리더십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제3세계의 정치리더십은 제도의 현대화와 합리화가 추구되는 과정 속에서도 전통적인 덕목을 재현하곤 한다(Legge 1973). 자바(Java)의 전통사회에서 선왕에게 기대되었던 리더십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스리는 것(perintah halus)이었다. 권력의 진정한 힘은 조용한 정적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며 소란스러움은 권력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태도라는 것이다(Magnis-Suseno 1997, 102-105).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능력이 모범적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이 자바의 전통이었다(Antloev et al. 1996, 13). 전통극 와양(wayang)에서 강력한 주

인공들이 여성과 남성이 결합된 듯한 중성적 이미지로 표상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메가와티의 부드러운 조용함은 권력자의 덕목에 대한 자바의 전통적 인식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드러움은 권력을 표현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용맹하고 유능한 전사가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거칠게 날뛰는 적을 무찌르는 장면을 상상하면 적절할 것이다. 즉 부드러움은 집중된 에너지로서의 힘(power)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발현하는 양태인 것이다.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학습을 통한 지식의 획득도 강조된다(Anderson 1990, 54-58). 그렇다면 메가와티는 권력을 표출하는 덕목을 외양으로서 갖추었으나 그것의 바탕이 되는 용기와 지식이 부족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메가와티는 아시아 여성정치리더십 연구에 있어서도 소중한 사례로 조명될 만한 가치가 있다. 필자는 메가와티의 정치적 성패를 ‘여성성의 정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메가와티의 집권은 여성성이 정치리더십을 구사하는데 있어서 약점이라고만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치 전략과 결합될 경우에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메가와티는 여성이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서 폭넓게 선호되는 이유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주적인 ‘여성반대자’는 보살핌과 청렴의 상징을 통하여 독단적이고 부패한 ‘남성독재자’의 적절한 대안으로 민중들에게 선호될 수 있으며, 구체제세력들에게는 보복을 가할 위협이 적고 정치적 경쟁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제거하는 공작을 펼칠 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기 때문에 이행기 지도자로서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을 메가와티가 잘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제위기와 결합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상황에서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상징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을 첨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정치리더십의 여성성은 여전히 ‘이중의 칼날’이다. 보살핌과 청렴 같은 여성적

상징은 무지와 나약함과 같은 상징으로 쉽게 대체되기 때문이다.

32년간 통치했던 수하르토(Soeharto)가 물러난 뒤에 인도네시아를 통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총체적 위기와 엄청난 사회적 열망에 직면하였지만 예전처럼 권위주의적 억압과 배제를 가하거나 ‘공포의 문화’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체제 이행에 따라 정치리더십 스타일의 변화도 요구되었다. 수하르토가 권위주의 제도와 국가폭력을 기반으로 초법적인 개인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면 민주화 시대에는 반대세력과 협상하는 “중도적 리더십”(middle-way leadership)을 필요로 했다(McIntyre 1991). 그런데 이 중도적 리더십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메가와티는 정적들을 해치지 않고 권력을 나눠주고 방임하는 방식으로 실현하였다. 그녀는 정적들이 기대한 것처럼 그들의 안전을 확실히 지켜주었다. 메가와티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무위’와 ‘방임’이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위의 정치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강제된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그 덕분에 정치안정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것만이 분명할 뿐이다.

민주주의 이행기에 인도네시아는 세 명의 대통령을 겪었다. 어떤 일본학자는 “듣지 못하는 대통령”(하비비), “보지 못하는 대통령”(와히드),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메가와티)의 ‘장애인 3박자’였다고 냉소하였지만, 그렇게 거치는 6년간 인도네시아는 거시경제지표를 개선하고 민주주의 이행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귀머거리 대통령’이 정당과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설립규제를 철폐하였고, ‘장님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였고, ‘멍어리 대통령’이 사상최초의 대통령직선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성사시켰다. 경제정책을 국제통화기금(IMF)이 감독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의 독자성은 정치적 차원에서 찾아질 수 있었으며, 세 명의 대

통령은 시민권을 신장하는 정치개혁을 통하여 국가신용을 드높이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보상하려는 전략을 추구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메가와티의 비교적 특성을 찾자면 이러한 개혁을 정치안정 속에서 달성하였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정치는 개혁입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치안정도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국가를 탄생시키는 ‘거대한 이행’을 달성하였으며, 그것은 국민들의 치열한 업적이자 이른바 ‘장애인’ 대통령들이 이루어낸 성과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 2006. “필리핀 정치 위기와 여성 리더십.” 『동남아시아연구』16(2).
- 박사명. 2007. “동남아의 위기극복과 정치리더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비교연구.” 근간예정.
- 비키 랜달. 김민정 외 역. 2000. 『여성과 정치』. 풀빛.
- 신윤환. 2006.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10년: 공고화되고 있는가?” 성균관대 동아시아지역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문.
- 이명남. 2007. “리더십이란?” 『2007대통령후보 리더십 청문회』. 부키.
- 이영조. 1998.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사상』 10(2).
- 전제성. 2002. “와히드의 몰락과 인도네시아의 미래.” 『시민의 신문』10월 12일.
- _____. 2005.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와 산업관계의 변화: 노동법 개정의 내용과 과정 분석.” 윤진표 편.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폴리테이아.
- 풍키 인다르띠. 전제성 역. 2005. “인도네시아의 인권을 위한 장기항전과 무니르의 삶.” 『기억과 전망』12(가을호).
- 100 Tokoh yang Mengubah Indonesia (인도네시아를 바꾼 100인의 지도자). Yogyakarta: Narasi, 2005.

- Anderson, Benedict R. O'G. 1990. "The Idea of Power in Javanese Culture." *Language and Power: Exploring Political Cultures in Indone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Indonesian Nationalism Today and in the Future." *New Left Review* 235 (May/Jun).
- Antloev, Hans, and Sven Cederroth. eds. 1996. *Leadership on Java: Gentle Hints, Authoritarian Rule*. Richmond: Curzon.
- Azra, Azyumardi. 2003. "The Megawati Presidency: Challenge of Political Islam." Hadi Soesastro, Anthony L. Smith, and Han Mui Ling. eds. *Governance in Indonesia: Challenges Facing the Megawati Presidency*. Singapore: ISEAS.
- Barton, Greg. 2002. *Gus Dur: The Authorized Biography of Abdurrahman Wahid*. Jakarta and Singapore: Equinox.
- Bellin, Eva. 2000. "Contingent Democrats: Industrialists, Labor, and Democratization in Late-Developing Countries." *World Politics* 52 (January).
- Bowles, Nigel. 1999. "Studying the Presidenc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
- Brooks, Karen. 1995. "The Rustle of Ghosts: Bung Karno in the New Order." *Indonesia* 60(October).
- Castle, James. et al. 1999. *Who's Who in Indonesia's Political Arena: The Player, the Parties - A Comprehensive Guide*. Jakarta: Castle Group.
- Haris, Syamsuddin. 2007. *Konflik Presiden-DPR dan Dilema Transisi Demokrasi di Indonesia*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그리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이행의 딜레마). Jakarta: Grafiti.
- Hart, John. 1998. "Neglected Aspects of the Study of the Presidenc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 379-99.
- Hellman, Joel S. 1998. "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 *World Politics* 50.
- Imparsial. 2005. *Laporan Kondisi HAM Indonesia 2005* (2005년 인도네시아 인권상황보고서). Jakarta: Imparsial.
- KPU. 2000. *Pemilu Indonesia dalam Angka dan Fakta Tahun 1955-1999* (수치로 본 1955-1999년 인도네시아선거). Jakarta: KPU(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

- Lane, Max. 1999. "Mass Politics and Political Change in Indonesia." Arief Budiman et al. eds. *Reformasi: Crisis and Change in Indonesia*. Clayton: Monash Asia Institute.
- Legge, J. D. 1973. *Traditional Attitudes and Modern Styles in Political Leadership*. London: Angus and Robertson.
- Liddle, R. William. 2001. "Megawati: Her Father's Daughter?" *The Jakarta Post* 31 February.
- _____ and Saiful Mujani. 2007. "The Power of Leadership: Explaining Voting Behavior in Three Indonesian Elections." *근간예정원고*.
- Liem Soei Liong. 2003. "A Soft Coup by the Military." *TAPOL Bulletin* 171/172 (June-July).
- Lindblad, J. Thomas, and Thee Kian Wie. 2007.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3(1).
- Luwarsono, Lukas. ed. 1997. *Peristiwa 27 Juli (7월 27일 사태)*. Jakarta: Aliansi Jurnalis Independen dan Institut Studi Arus Informasi.
- Machali, Rochayah. 2001. "Women and the Concept of Power in Indonesia." Susan Blackburn. ed. *Love, Sex, and Power*. Clayton: Monash Asia Institute.
- Magnis-Suseno, Franz. 1997. *Javanese Ethics and World-View: The Javanese Idea of the Good Life*. Jakarta: Gramedia.
- McBeth, John. 1999. "Mother Earth."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 _____. 2004. "The Limits of Popularit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4.
- McIntyre, Angus. 1999. "Megawati Sukarnoputri: From President's Daughter to Vice President."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32(1-2).
- _____. 2001. "Middle Way Leadership in Indonesia: Sukarno and Abdurrahman Wahid Compared." Grayson Lloyd and Shannon Smith. eds. *Indonesia Today: Challenges of History*. Singapore: ISEAS.
- Puddington, Arch. 2007. "The 2006 Freedom House Survey." *Journal of Democracy* 18(2). April.

- Richter, Linda K. 1990-91. "Exploring Theories of Female Leadership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acific Affairs* 63(4). Winter.
- Sadli, M. 2005. "Habibienomics, Gusdurnomics, Meganomics dan Apalaginomics (하비비노믹스, 구스두르노믹스, 메가노믹스, 다음엔 또 무슨 노믹스)?" Hadi Soesastro et al. ed. *Pemikiran, Permasalahan Ekonomi di Indonesia dalam Setengah Abad Terakhir* (지난 세기 하반기의 인도네시아 경제 문제와 사상) Vol. V: 1997-2005. Yogyakarta: Kanisius.
- Sato, Yuri. 2005. "Overview of the Seven Years' Experiment: What Changed and What Matters?" *The Developing Economies* XLIII(1). March.
- Sebastian, Leonard C. 2004. "The Paradox of Indonesian Democra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6(2).
- Sen, Krishna. 2002. "Gendered Citizens in the New Indonesian Democracy." *RIMA* 36(1).
- Sen, Kunal, and Liesbet Steer. 2005. "Survey of Recent Developmen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41(3).
- Smith, Anthony L. 2003. "Indonesia in 2002: Megawati's Way." *Southeast Asian Affairs 2003*. Singapore: ISEAS.
- Sumarno. 2002. *Megawati Soekarnoputri: Dari Ibu Rumah Tangga Sampai Istana Neara*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가정주부에서 대통령으로). Depok: PT Rumpun Dian Nuraha.
- Thee Kian Wie. 2006. "Policies Affecting Indonesia's Industrial Technological Development." *ASEAN Economic Bulletin* 23(3).
- Thompson, Mark R. 2004. "Female Leadership of Democratic Revolutions in Asia." *Democratic Revolutions: Asia and Eastern Euro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hapter 2.
- Unidjaja, Fabioa Desy. 2004a. "Megawati, Complicated and Aloof." *The Jakarta Post* October 19.
- _____. 2004b. "Megawati's Last Stand Came Too Late." *The Jakarta Post* December 27.

주요 인터뷰

Amien Rais. 2006/03/24.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 전(前) 의장. 정

치학박사.

- Anderson, Benedict. 2005/01. 코넬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인도네시아 정치전문가.
- Atje, Raymond. 2007/01. 인도네시아국제전략연구소(CSIS) 경제분과장.
- Bang Ali(애칭). 2004/04.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PDIP) 간부, 2004년 총선 수라바야지역구후보.
- Crouch, Harold. 2007/07/06. 호주국립대 정치사회변동학부 명예교수. 인도네시아정치전문가.
- Danu Rudiono. 2004/07. 인도네시아 노동운동단체 후마니카(Humanika) 대표.
- Honna, Jun. 2007/07/11. 교토 리츠메이칸대 정치학과 교수. 인도네시아 군부전문가.
- Jellinek, Lea. 2000/04. 인도네시아빈민연구자. 인류학박사.
- Karaniya Dharmasaputra. 2007/07/11. 인도네시아시사주간지 『템포』(Tempo) 정치부 기자.
- Masaaki, Okamoto. 2007/07/11. 교토대학교 동남아연구소 교수. 인도네시아사회전문가.
- Mochtar Masoed. 2005/02/15.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Poengky Indarti. 2005/01, 2007/06/30. 인도네시아 인권운동단체 임파르살(Imparsial) 부소장.
- Taufik, Ahmad. 2007/07/11. 인도네시아시사주간지 『템포』 정치부 기자.
- Thee Kian Wie. 2005/01. 인도네시아 국립학술원(LIPI) 경제학 교수.
- Tommy Legowo. 2006/02/21. 인도네시아국제전략연구소(CSIS) 정치분과장.
- Wanandi, Jusuf. 2000/07. 인도네시아국제전략연구소(CSIS) 이사장. 국제 정치전문가.
- Wijaksaana, M. Bahrul. 2004/07. 여성운동지 『여성저널』(Jurnal Perempuan) 편집인.

ABSTRACT

Megawati's Political Leadership Coping with Total Crisis in Indonesia

JEON Jeseo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gawati was elected as a President of Indonesia, which had been plunged down into a total crisis and then made its way out of the IMF-controlled economy and accomplished the democratic transition. Many thought she could be successful politically thanks to her father, Soekarno. However, she made a different quality of leadership with her father in that she led Indonesia from crisis to recovery and conducted her own symbolic politics as a political victim and housewife. Her feminine nature was used to mobilize people's sympathy, and her politics of compromised non-intervention was effective in getting political competitors' support. The strategic redirection from mobilization to compromise left two contrasting consequences to her political career. As a national leader, she could achieve economic recovery and political stability; however, as an individual politician, she was not successful in securing another term as a President. Megawati is the case that stimulates imagination about the political solution of economic crisis in the Third World, the interrelatedness between crisis and female political leadership in Asia, a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wer in modern Indonesia.

Key Words: Economic Crisis, IMF, Democratization, Political Reform, Corruption, Symbolic Politics, Aceh Conflict, Female Political Leadership